
제 40회 숭대극회 봄 정기공연

農

女

•작: 윤조병
•기획: 천승범
•연출: 안선호

- 일시 : 1989년 5월 25, 26(水), 27일(木, 6)
-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 후원 :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 협찬 : 동아제약주식회사

〈지도교수의 글〉



한 승 옥
(국문과 교수)

연연이 흘러온 숭실의 맥속에 연극예술 창조의 험로를
땀으로 수놓는 숭대극회에 격려의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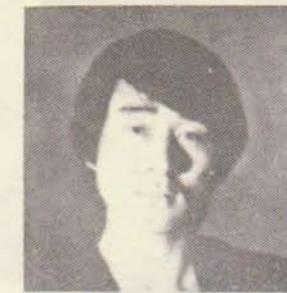
문명의 타성에 잠겨 퇴화해 버릴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며, 작품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경험을 배우면서
보다 참신한 사고로 우리에게 현명한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며, 연극에의 참여를 통하여 창조정신을 함양하고 작품의 형상화속에서 미경험의 세계까지 포용하고자하는 “젊은 굿쟁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숭대극회의 마흔번째 정기공연 “농녀”의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하며

총체적인 연극양식속의 작은 알맹이마다마다에 소중한 정성을 담은 숭대극회 과거의 작품들을 상기하면서, 마흔의 의미가 결코 안주함이나 정체가 되지 않고 앞으로의 활력소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좋은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모시는 글〉



오 정 열 (사학82)

계절은 또 떠남을 서두릅니다. 그의 온도와 밝기가 살갗에 겨우 익숙해졌는데 말입니다.

하나의 계절이 마감할 무렵이면, 우린 또 이렇게 막절힘을 감행하곤 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 무대와 호흡의 박자가 맞물리려 하는데, 막은 우리의 노출을 방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숭대극회 제 40회 정기공연 ‘농녀’를 노출시킴에 있어서, 제 4의 벽 너머에서 무대를 향해 앉으신 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덜맞은 호흡의 박자를 맞추려 합니다. 아직 남은 열의를 부추겨 마지막 공연준비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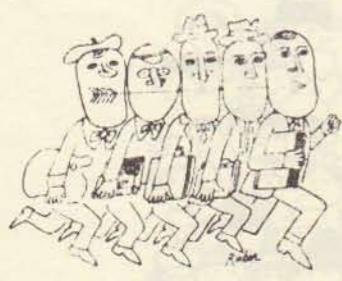
〈기획의 변〉



기획
천승범 (화공'86)

참회의 눈물로 뿌리를 내려
하늘과 화해하는 나무의 마음으로 선다.
천만번을 가져도 내가 늘 목마를 당신
보고싶으면, 미류나무 끝에 앉은 겨울바람으로 내가운다.
당신이 빛일수록, 더 절은어둠의 나
이 세상 누구와도 닮은 일 없는,
폭풍같은 당신을 알아 편할 길 없다.
오늘은 엊갈리는 만남의 비극속에
내일은 열리는가?
땅 위의 누구와도 바꿀수 없는,
내 存在의 끝은 당신.
편히 잠들날 없는,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앞에 선다.

막이 오르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안박사님, Cast 들, Staff 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함을 표합니
다. 또 보일듯 말듯 하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힘껏 뛰어준 천사단에게도 머리숙입니다.
끌으로 숭대극회를 찾아주신 관객여러분께 감사하며 여
러분이 존재하는 한 숭대극회는 더욱 더 발전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무대로 부터 탈출한 사람들



무대감독
박경근 (전자82)



기획보
박원상 (독문88)



조연출
김수진 (사학86)



무대장치
안선후 (섬유85)



음향
채경희 (통계89)



분장
황금실 (국문85)



조명
황명식 (전기88)



홍보
남재현 (철학88)



진행
박준희 (자자86)

공연을 축하합니다.

숭실대학교

구내서점

— 숭실 학우의 집 —
학우당구장

당신의 스트레스를
기다립니다! 817-1191

〈작가 및 작품연구〉

이 剧 '農女' (1982年) 의 작가인 尹朝炳氏는 연극에 뜻을 두고 習作을 거치는 60年代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집필에 임했던 70年代末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劇作家이다. 먼저 간략하나마 그의 沿革을 살펴보면,

1939年 5月 충남 조치원에서 出生하여 '60年 서울 法大를 중퇴하고' 70年初까지 조치원 중신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67年 국립극장 장막희곡 공모에서 <이기 낀 故郷에 돌아 오다> 가 당선되었고 '72年 한국영화 진흥공사 제1회 우수 시나리오 공모에서 <저 天使의 눈망울이> 가 당선됨으로써 본격적인 문단 데뷔에 성공하였다. '82年에 극단 「에저 또」의 단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代表的 작품으로는 '참새와 기관차' (1977) '家出記' (1979) '農士' (1981) '겨울 이야기' (1983) '農民' (1983) '휘파람 새' (1984) '모닥불 아침 이슬' (1984) '풍금소리' (1985) '故郷의 봄' (1986) '초승에서 그믐까지' (1986) 等이 있다.

그는 습작기 시절 리얼리즘(Realism)과 轉位劇 양쪽에 관심을 갖고 두 가지 작품을 거의 비슷한 비중을 두고 습작을 하였으나 리얼리즘은 쓰기 편하고, 보기 편하면서, 日常的 内容이라는 생각인 반면, 전위극은 쓰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우며, 깊은 哲學과 충격을 갖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서서히 리얼리즘의 방향으로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서 Realism 연극은 그 표현양식에 있어서는 이미 古典이 되어 있고, 내용으로 담겨지는 主題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道德的이거나 倫理的이어서 낡았다는 느낌을 주기 쉽다.

尖端的 時代, 多元多岐的 감각과 知覺의 충동을 요구하는 Technology 文化 속에 살면서 이러한 낡은 리얼리즘 연극은 오히려 시대착오적 幻想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사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강한 욕구와 호기심, 未知의 世界에 도전하려는 모험심과 開拓精神을 갖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轉位劇, 不條理劇, 無言劇(Pantomime), Event Happening, Performance 환, 마당劇 등 새로운 표현양식을 찾아내어 미래지향적 연극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리얼리즘이 고전이고, 낡았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限界性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리얼리즘은 일반적인 연극을 總稱하는 代名詞로 사용될 만큼 굳건한 뿌리를 내렸지만, 이와 함께 리얼리즘의 시작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概念은 이미 한정적 영역을 넘어서 혼란속에 떠돌고 있음도 사실이다. 모방, 모사, 재현, 반복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그 때문에 陣腐하다는 느낌이 오고,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에 도착한 것이다.

이것은 一次的으로 리얼리즘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作家, 演出家, 演技者, 무대미술, 의상, 효과에 이르기 까지 리얼리즘을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尹朝炳氏는 리얼리즘을 체계화된 생각을 지성적이면서 감각적으로 함축시켜 정확한 계산과 훈련으로 절제된 言語와 行動으로 구성, 삶의 모습을 성숙하게 반영하고 있다.

윤 조병씨의 創作作業은 평범한 인간, 친숙한 경험, 즉 庸民的人生을 그리며,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그 체험 속에서 真實性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이극 '농녀'는 1980년 초 現代 農村에서 살고 있는 – 이들은 여기에서 4代 이상 살 아왔다 – 典型的인 農家 와 그 주변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살아 오는 過程에서 많은 의문을 가시게 했던 젠네할배의 죽음을 계기로 드러나는 바우 할멈의 過去, 젠네할배와 바우 할멈과의 관계, 여기에서 유언장에 나오는 젖네의 구체적 人物이 바우 할멈이라는 사실발견, 바우 할멈의 막내 아들인 동오의 出世를 目的으로 한 행동, 이로 인한 바우 할멈과 동오의 心의 갈등이 최대로 확대, 바우의 家出, 며느리 길례의 性的 문란의 표면화, 떠돌이 女憎과 바우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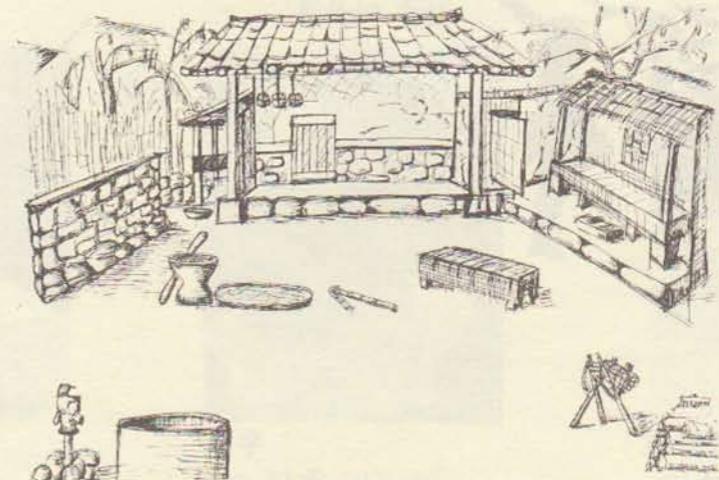
또한 當時의 社會上을 말해주는 人力輸出과 경제적 피폐가 깔려 있다. 결국엔 바람난 며느리의 歸家와 함께 갈등이 해소되고 바우 할멈은 길례에게 그 자신의 脈을 내린다는 데서 이극은 클라이 막스에 이르며 주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암시를 준다. 그런데 이극에서 좀 특이하게 눈여겨 보아야 할 것들이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농촌물이 이 작품의 리얼리즘 무대이면서 자연의 상상한 색채를 배제해버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田野에는 계절에 따라 自然의 색깔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사에서 鄉土의 言語, 詩的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리얼리즘에서는 리얼리티가 생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은 그들의 이력서 혹은 신상명세서에 알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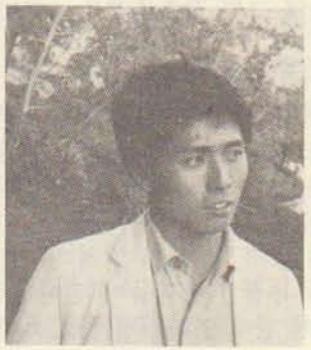
셋째, 도덕과 윤리, 때로는 宗教的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해석을 함으로써 '溫故知新'의 정신을 다루고 있다. 넷째로는 그간의 극적 구조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대립을 통한 갈등 구조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끼리의 갈등에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바우 할멈과 며느리 길례는 똑같은 과부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갈등을 갖게 된다. 또 수다댁과 월뻔댁의 경우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나 같은 갈등, 즉 경제적 곤란을 함께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극의 심각함과 무거움에 대비하여 간간이 웃음을 자아내어 무거움을 덜어주기도 한다.

이번 작품 농녀는 진실로 오랜만에 대하는 – 1971年 崇大劇場에서 7回 演劇祭로 주정서 演出에 의해 윤 조병氏의 작품인 「건널목 삽화」 공연한 바 있다 – 윤 조병氏의 리얼리즘 연극이 아닌가 싶다. 그의 주장처럼 리얼리즘은 표현 양식이나 주제에 있어서 고전이거나

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의 神秘나 우주의 神秘처럼 폭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神秘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느끼려 한다. 農女를 통해서...



〈연출의 변〉



연출
안 선 후 (섬유'85)

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새 어둠으로 변해 버렸다.
黑과白은 분명 存在하며 구분되는 것일진데
지금 이곳엔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암울한 색을 띠고 있다.
너무나도 음침하고 칙칙한 그런...
빛이 밝을수록 그 뒤에 따르는 어둠도 짙다던데,
다시 올 광명에 섬뜩 두려움을 느낀다.
아! 한없이 부럽고 동경스러워진다.
明暗을 외면해 버릴 수 있는 그가,
손 내밀어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곳엔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다.

〈무대에 간한 사람들〉



바우할멈
김 옥경 (국문88)



길레네
판숙경 (사사89)



윌뻔댁
함현정 (통계89)



수다댁
권승혜 (불문88)



동이
이범준 (불문89)



동오
곽경운 (기계89)



바우
소장호 (전산89)



젠 네할배
안성문 (건축88)

〈내가 만난 “농녀”〉

“농녀라니 ? ”

“農女 말여 ”

“아 시끌여 자 ! ”

빌딩 숲속에서만 살아온 나에겐, 왠지 촌티 풍기고 소동 냄새나는

소리였다. 칠십평생 모진 시상을 질기게 살아온 농녀.

처음 만났을때는 한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어머니의,

파연, 내가 한을 가진 농녀로 될수 있을까?

오십여일이 지난 지금, 어디선지 캐계묵은 소동 냄새가 풍기는것 같은데…,

- 바우할멈 -

길례내가 되고자 했다. 참말로 그녀이고 싶었다. 몇번이고, 낡은 무대위에서

몰락해가는 어느 시골의 농가를 느끼고 싶어 했다. 그 농가의 세째 며느리고자 했다.

어려웠다. 벌써 며칠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울해했다.

연출의 욕한마디에 슬프기보다, 무대위에선 아니어야 할 숙경이가 되버리기에 슬펐다.

어느 연극에서 배우의 미숙함을 탓하던 자신이 쑥쓰럽게 떠올려지도록 연극은

힘든 작업임을 알게됨에도 보람을 갖는다.

- 길 레 네 -

갑작스런 역 배정을 받아 휘둥그레진 내눈앞에 「농녀」라는 낯선 희곡이

다가섰다. 갖은 고난과 풍파를 거치며 恨의 세월을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이들 세대에 이르는 매정하고 이기적인 현대사회와의 갈등과 이를 물리쳐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세월의 변화에 맞서려는 한 노 인의 의지를 담고있는 각박한

사회와 한 현대인으로서 농녀에 대한 아쉬움과 그보다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고집스럽고도

비장한 농녀의 삶에 숭고함마저 느끼게 되는것은 어찌된 일일까?

- 될 뻔 댁 -

우리가 언제나 가식처럼 원하는 진실이 베일에 쌓인 아름다운 비밀로

남겨질 순 없는 걸까.

자신의 호기심 충족 욕구로 인한 진실추구인가, 진실추궁인가.

아, 이젠 머리가 빠게질것 같다.

모든것이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체로서 만족되어 졌음 하는 바램이 든다.

정말 이젠 허상만을 좇으며 살고 싶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그때의 아침햇살이

유리처럼 투명하듯이.

- 수 다 댁 -

이 작품을 대하면서 나 자신이 극 속안의 동이가 아닌 실제적인 동이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스스로가 우리 고유의 전통적 맥락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생활은 우리 고유의 전통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그러한 맥락들을 경시한채 행동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극은 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피력할 수 있는 터가 되었던것 같았다.

물론 대사를 하는데 있어 낯설은 사투리가 많이 삽입되는 바람에 어려웠던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말투들이

나에겐 왠지 정답개들 느껴졌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 맥락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랄까…

- 동 이 -

처음에는 그냥 무너져가는 농촌을 그렸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작품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고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외형적인 것은 사라져가도

그 정신만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어쩔수 없는 힘에 의하여 딸려 가지만 그 근본이 깊으므로

살아난다. 겨울을 지낸 풀이 죽은것 같지만 그뿌리가 있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 바 우 -

한국 여인의 대표적인 정서는 ‘한’이라고들 한다.

작품 농녀는 비단 농사짓는 여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땅의 여인들의

삶을 진솔하게 조명하여 그녀들의 생활상에 스며있는 ‘한’을 느끼게 했다.

우리네 사회상에서 여자의 위치란 보잘것 없었다. 해서 겪어야 할 모진 삶

속에서도 그녀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바우할멈에게 있어서 물질문명속에서 편하고 쉽게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녀에게서 행복이란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

가족들과 더불어 일한 만큼 벌고 자기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생활상에서

진실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다.

- 동 오 -

나 자신이 점점 실체를 잃어가고 離은이化 되어감에 따라 무대는 내게

친숙해지고, 자신감에 내 배역을 사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욕과 한숨으로 뒤엉킨 무대에서 구르는 모습이 무지무지 원망스럽지만,

이제, 그런 생각하기에는 연출형과 기획형에게 정말 죄송하다.

아무튼 공연 때 두고 보자!

- 젠네 할배 -



▶ “야! 웃으면서” 착각 “어휴, 눈 감았네” ▶

읽을거리 I.

-연극 및 연기에 대한 토막글 모음-

- 연극 형식속에는 진실에 대한 인류의 의식을 강렬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변모시킬 만한 궁극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아더 밀러-
- 연극의 경우 연극 배우는 다만 출연만 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관객을 대하고 그들의 눈앞에 살아 있다. 장치가 삼면인 것은 관객에게만 그런 것이고 무대위의 사람에게는 제4의 면이 있다. 배우가 다른 삼면보다 제4의 측면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그때, 연극적인 연기가 시작된다. -왕리구이에의 철학쪽에서 본 연극 中-
- 배우의 눈이라는 것은 관객의 주의를 끌고, 게다가 관객의 눈 둘 곳을 가르쳐 준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우수업 中-
- 잊어버린 핵심을 즉 잊어버린 빛과 소리, 잊어버린 육체를 무대에 올릴때 그빛과 소리와 육체는 아주 낯설다. 낯선것은 충격적이다. -이상일의 카스파 공연기념김연희 개요 中-
- 연극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생존을 위해 광적인 시대의 비참함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인간이 갖는 모순이다. -연출가 이병훈의 연출노트 中-
- 변신의 미술에 걸리는 것은 모든 국 예술의 전제조건이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 中-
- 누구나 외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그런짓을 하면 경범죄에 걸리거나 미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락된 비 일상적 공간을 찾아가는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연극 공간이다. -이 어령-
- 촉각 연습 시작이야
눈을감고 열 손가락으로 빛어
만들고 느끼는 거야
자 지금 이순간 시궁창으로부터
이것을 집어
올려봐
그것을 두손에
들어 네 품에 안았다고 상상해봐 -중 락- -김 혜순 詩 '판토마임 감사' 中-
- 광대라는 직업이 천하다는 것은 둘서 고금을 막론하고 한가지다. 세상이 바뀌면서 그토록 갑시밭던 깃바지도 구두공장 차려 재벌이 되고 몸을 파는 기녀도 수십억 되는 업소를 차려놓고 명명 거리건만 우리 광대들은 늘 그모양 그꼴이니 그 이유인즉슨 본시 광대의 삶이 돈과 권력을 향하지 않음에 있으리라.
삶이 천하기 때문에 광대는 자유롭다. -김 광립-
- 한국연극계의 종종 : 존재내면을 파고 드는 좋은 대본의 결핍, 아테네의 천재들은 연극을 통하여 신화학을 인간학으로 회전시켰다. 인간존재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과 갈등의 탐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성주의가 깊고 있는 기만성, 이성(과학)이 한계를 드러내는 곳에서만 비극은 탄생된다. 진리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예술을 사랑해라. -김 용옥-

승대극회에서는 앞으로 공연될 팜플렛에 '읽을거리'라는 지면을 계속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렵고 골치아픈 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얘기를 쉽게 전달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극사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축 ◆ 공연 ◆

순수연극을 지향하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숭대극회 제40회 봄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리의 단결의 구심!!!

- 민족승실 동아리 연합회 -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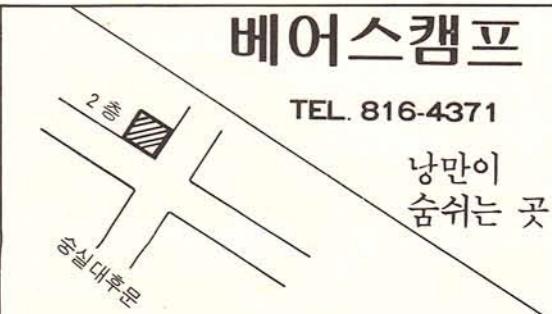
연래춘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읍니다.

베어스캠프

TEL. 816-4371

낭만이
숨쉬는 곳



공간기획

(공연예술 종합기획)

서울 · 종로구 명륜동 1가 10-639
TEL. 741-5287

공연기획, 조명DISPLAY, 무대장치
음향설비, EVENT-STAFF



공연예술종합기획

CELL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TEL. 848-4619

•공연기획 •무대장치 •무대조명
•조명DISPLAY •조명DECORATION

《연습일지》

4月 (○ ○)

대본 상견례

4月 (△ △)

술잔을 기울이며 암두꺼비를 찾을때
까지 인물결정...

4月 (× ×)

표면화된 공포. 올 여름 건강은 장담할듯...

4月 25日

중간고사속의 강행군. 머리가 뽀개져간다.
선배님들은 중간고사 아예 제쳤구먼
잠을 조금만 포기해야 했다.

5月 (△ ×)

섬세한 계절의 문턱에서 조심스레 한발씩
다녀본다.

자! 오기다! 양칼지게 부리리라.

5月 (△ ×)

이젠 뭔가 알때여야 했지만
늘 미숙함에 우울해 한다.
연출형 그 빙신이 욕하나는 끝내주게 하드라
누군 잘하고싶지 않아서
헤메고 있다.

5月 (△ △)

낡은 무대위에서 너와 내가 몸부림쳤다.
그건 실로 투쟁이리라.

5月 (△ △)

미장이가 되곤했다 연 나흘째
석수공이기도 했다.
막이 열리면 화려한
조명속에 내모습 덩그마니
남아있다. 그날을 느끼며
가슴 뛰어 한다.

5月 16日

잊을만 할때쯤 괴기 구경을 한다.
흡사 우린 아귀였다.

준비해준 손길위에 내 모든 사랑을...

5月 (△ △)

늘 초조하지만 과장되게 웃어보기도 했다.
의기소침이 최선은 아니니라투쟁! 투쟁!
준비해주신 선배님. 사랑합니다.
친구들!

우리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세나!

5月 (△ △)

너와 내가 늘 빼그덕대며
오르내리던
먼지투성이의 이 무대에선
오늘도 힘찬 열기 뿜어오르오.
늘 초조했지만, 지금 이순간 더욱 더
얼게 되오만 정말 우린 노력하오.

그건 최고였소.
막이 열리면 화려한

조명속에 내모습 덩그마니
남아있다. 그날을 느끼며
가슴 뛰어 한다.

Castle

城 Restaurant

Classic 한 분위기와 편안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만남의 장소!!! TEL: 816~4694

승실인의 느낌을 확인시키는 호프

Restaurant
미네르바
TEL: 816-3967

승실人의

상도상회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젊은이의 식사 처

그린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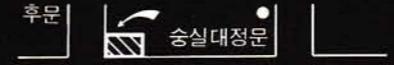


종합분식 · 신속배달
TEL: 816-5196

웰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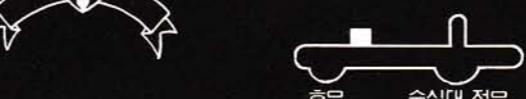
詩와 音藥이 있고

편안한 분위기 TEL. 816-7022



DEUTSCHER HOF
TEL: 817-0821

멋진 공간을 약속드립니다.



후문 중실대 정문

-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Tel. 812-4820

충실대입구 ← → 한증막

Café
섬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옛촌



TEL. 813-6235

공 축 연



승대극회의 제40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제약주식회사

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 : 13	연홍회사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맘로" "대비극 노예의 탐"		
	1923년 7 : 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계인간" 앱엔정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석作 이만기획	전진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e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와 캠론"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샤무엘·베케트作	김양기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건널목 삼화" 윤조병作 "담배해독에對해서" 안톤·체홉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터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샤무엘·베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作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作	한영재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 씨의 결혼" F. 워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作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 까워作	정종화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에프스카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h作	김기영	안홍순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발리作	김기영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뱀" 장·클로드·반·이발리作	김영덕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쉐퍼作	백정식	김영덕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쉐퍼作	방영철 김영덕
19	1978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쉐퍼作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정재호 이병국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대석作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엄세범 박양진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워렌마트作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명종作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9 : 12, 13	"까리글라"	A. 까워作	음대용 지숙
27	1982년 10 : 7, 8	"섀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 씨의 결혼" F. 워렌마트作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 : 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 : 9, 10, 11	"빈민 굴"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파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쉐퍼作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전형진 이준석 오정열
37	1987년 9 : 10, 11, 12	"오 해"	A. Camus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 : 2, 3, 4	"세번은 끊게 세번은 걸게"	이 어령作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 : 6, 7, 8	"안내봐?, 못내봐?!"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품"	W. Arving 作	김홍수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김득남
3	1977년 3 : 16, 17, 18	"줄 빌"	윤대성 作	전경호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 作	한 철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환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作	최시영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데디"	피터·쉐퍼 作	전희식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 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민
10	1986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릭·임센 作	이경영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 作	백윤현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作	천승범
13	1989년 3 : 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전총곡"	A. Camus	홍덕태